



특집 _ “빛을 되찾은 기쁨을 노래하라”... 박정현에서 인순이까지 감동의 무대
 화제 _ “동포들의 모국 사랑에 감사...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
 초점 _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하려면 재외동포 역할 절실”



재외동포를 우리의 역사·교육·정책에 포함시켜야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UN인종차별철폐위원)

‘동포’란 참 따뜻하고, 든든하고 또 애잔하기도 한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혈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동포로 껴안습니다.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등 여러 호칭이 경합하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민단도 총련도 모두 동포라는 말로 은연중 서로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와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채로 말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동포들은 또 어떤 이주의 곡절이 각기 다르게 맺혀 있을까요.

이 세계의 동포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활동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역사와 생활, 업적들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자료를 모아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 모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라키비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최근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능들에서 크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동포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동포들이 서로 만나고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둘째, 성공하고 활동적인 동포뿐 아니라, 소극적이고 숨겨져 있는 동포들을 찾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최근 재외동포재단에서 소외된 동포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인권 업무를 시작하신 데 대해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해외 입양동포들과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을 위해 연구 조사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중에 재단이 해외 입양동포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여 어려운 중에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귀환 아동들이 자라 한국을 위해 일할 재목이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차별받고 있는 조선학교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우리 민족이니깐요. 한국의 복지정책이 점차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중에 동포들에 대한 정책도 다각화되어, 한국과 세계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한국인이 되고 최고의 나라가 되는 꿈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실제 모든 정책에 반영된다면 작은 나라 한국은 세계의 거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규교육에 재외동포의 역사와 정치, 예술 모두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





04



06



12

- 02 권두언 재외동포를 우리의 역사·교육·정책에 포함시켜야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UN인종차별철폐위원)
- 04 특집 “빛을 되찾은 기쁨을 노래하라”… 박정현에서 인순이까지 감동의 무대
- 06 화제 “동포들의 모국 사랑에 감사…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
- 08 초점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하려면 재외동포 역할 절실”
- 10 글로벌 코리안 국내 청소년 멘토 꿈꾸는 구글 전무 미키 김
문화로 중국인 마음 여는 김동신 한중문예진흥원 이사장
2주 연속 우승한 재미동포 프로골퍼 대니엘 강
- 12 한민족 공감 1 미주 독립투사들의 애국혼을 만나다… 대한민국민회 현장 등 81점 전시
- 13 한민족 공감 2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여한 김민선 씨… 뉴욕주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대의원
- 14 동포소식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서 한인 2세 기조연설 외
- 16 동포 캘린더 중국 상하이 한인타운서 한 달간 한국 문화 축제 외
- 17 주목! 차세대 동포 2세 변호사 앤지 강 박 홀루 부사장
- 18 유공 동포 1 30주기 맞은 고려인 4세 록가수 빅토르 최
- 19 유공 동포 2 항일투쟁의 요람 신흥무관학교 기틀 세운 이석영
- 20 지구촌 통신원 1 광복 75주년임에도 황량한 연해주 독립운동 사적지
- 21 지구촌 통신원 2 코로나19에 빼격거리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 22 동포문학 에밀리 윤 영문시집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 국내 번역 출간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OKF 뉴스 한우성 이사장, 국방TV·국방일보와 인터뷰 외
- 25 기고문 해방 75년째의 여름을 맞이하여-재외동포의 현상과 과제
김창호 변호사(재일한국인 2.5세)
- 26 재단공지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2

“빛을 되찾은 기쁨을 노래하라” 박정현에서 인순이까지 감동의 무대

광복 75주년 재일동포 특집 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8월 15일, 오늘은 광복 75주년입니다. 빛을 되찾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강인한 정신과,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 바쳐 희생했던 동포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날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오늘, 우리는 어제를 기억하고 희망찬 내일을 노래하기 위해 마음속에 있는 태극기를 꺼내 수많은 영웅의 외침을 다시 기억해보려 합니다.”

광복 75주년 재일동포 특집 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가 8월 15일 오후 KBS 1TV로 방송됐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틀 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관객 없이 진행된 공연 실황을 녹화 중계한 것이다.

MC를 맡은 배우 박성웅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순국선열의 헌신과 동포들의 희생으로 빛을 되찾았다. 이날 무대는 재일동포 가운데서도, 가깝지만 먼 곳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곳곳이 조국애와 민족애를 실천한 재일동포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

재외동포재단 주최, KBS 주관으로 녹화 방송

첫 순서는 재미동포 출신 가수 박정현이 열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여성 독립운동가 7인이 독립 열망을 담아 옥중에서 지어 불렀다는 ‘8호 감방의 노래’에 새롭게 곡을 입힌 ‘대한이 살았다’를 부른 뒤, 대표곡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선사했다.

이어 재일동포 3세 퓨전국악 연주자 민영치는 국악그룹 이상, KBS관현악단과 함께 ‘오디세이(Odyssey) 긴 여행’을 들려줬다. 장구를 메고 산들린 듯한 연주 솜씨를 선보인 그는 “일본과 한국 양쪽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경계인이지만, 재일동포에게 국악은 뿌리에 대한 동경이면서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매개체”라면서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곡을 지었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된 뒤에도 모국 땅을 밟지 못하던 재일동포들은 1975년에야 귀성길에 오를 수 있었다. 여객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한 재일동포들은 광복 30년 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조상의 무덤을 찾았다.

성악가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당시 조용필이 발표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불러 그때의 감격을 회상하게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결선 무대에서 선보였던 ‘고맙소’도 특유의 미성으로 열창해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젊은 명창 이봉근의 ‘아리랑’과 ‘애국가’, 팬텀싱어 우승팀 포레스텔라의 ‘홀로아리랑’과 2002년 한일 월드컵 테마곡 ‘Champions’, 걸그룹 위키미키의 ‘OOPSY’, 싱어송라이터 폴킴의 ‘너를 만나’와 ‘모든 날 모든 순간’ 등도 이어졌다.

“수난과 영광의 순간마다 조국과 함께한 재일동포”

가수들의 무대 사이에는 재일동포의 조국 사랑을 소개하는 영상물이 흘러나왔다. 이수경 도쿄가쿠게이대 교수는 3·1운동의 마중물 구실을 한 2·8 독립선언 현장, 6·25가 터지자 두 번 다시 나라를 잃기 싫다는 마음에 목숨을 내던졌던 재일학도의용군, 일본에 있는 한국 공관 10개 가운데 9개를 기증한 재일동포들의 모국 기여 사례를 소개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신용상 전 단장과 박선악 전 부인회장, 김창호 재일동포 변호사 등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대표단의 유니폼을 만들어준 일화에서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올림픽회관과 경기장을 지어주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15억 달러의 성금을 보내주는 등 수난과 영광의 순간에 늘 재일동포가 조국과 함께했음을 증언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주요 부문의 상을 휩쓴 ‘기생충’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력을 과시한 배우 이정은도 등장해 재일동포의 염원을 전했다. 그는 올 3월 국내에서도 개봉한 재일동포 정의신 감독의 영화 ‘용길이네 곱창집’에서 용길 아내 영순 역을 맡았다.

“일하는 데도 조선은 항상 걸림돌이었다 / 그것을 알면서 아빠는 나를 조선으로 만들었다 / 덕분에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하루살이다 / 나를 달라며 엄마는 늙었지...(중략)...숨기고 닳아가고 대충 넘어가면 / 찾아올 날이 면목이 없지 / 머지않아 올 거야. 보람 있는 날이 / 매몰된 나날에 내버려진 / 맨몸의 신음을 들려줄 거야”

재일동포 시인 김시중의 시 ‘그래도 그날이 모든 날’을 낭송한 뒤 “영화속 용길이네 가족이 느꼈던 설움과 외로움은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의 마음과도 여전히 닳아 있다”면서 “머지않아 보람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시구처럼, 어제가 어떤 날이었든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 용길이의 대사처럼 재일동포들이 오랜 시간 꿈꿔온 좋은 날이 오길 소망해본다”고 기원했다.

“재일동포들의 희생과 봉사 되새기는 시간 되길”

피날레는 ‘국민 디바’ 인순이가 장식했다. ‘거위의 꿈’과 ‘행복’을 잇따라 들려주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을 모든 출연진과 합창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는 선조들과 함께 5천200만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재일동포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봉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1.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KBS가 주관한 광복 75주년 재일동포 특집 콘서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에서 진행을 맡은 배우 박성웅.
2. 재일동포 퓨전국악 연주자 민영치가 장구를 메고 신들린 듯한 연주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3. 가수 인순이가 모든 출연진과 함께 ‘Let Everyone Shine’을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
4.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배우 이정은

“동포들의 모국 사랑에 감사…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

문재인 대통령, 재외동포들과 화상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과 처음으로 화상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듣고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7월 24일 서울의 외교부 청사 종합상황실에 자리했고, 같은 시간 미국·중국·일본·인도·베트남·태국 등의 재외동포 대표와 재외공관장들은 각국 재외공관에 설치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동포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동받고 큰 기운을 얻었는데, 오늘 화상으로 안부를 묻게 되어 무척 반갑다”고 말문을 연 뒤 “지난 3월 한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외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고국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성금을 보낸 마다가스카르 200여 교민, 마스크 6만 장을 보내준 홍콩 교민, 베트남 격리자 3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선물한 호찌민한인회, 중국 우한 동포들을 위해 귀국 전세기를 포기하고 잔류를 선

택한 의사 등을 예로 들며 “많은 동포가 어려움 속에서도 고국을 먼저 걱정하고 양국 간 우정을 생각해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이며 국가는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뒤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교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원들은 재외동포가 가장 가깝게 만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전세기를 10차례 투입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117개국에서 4만 명 넘게 교민의 귀국을 도왔다. 기업 활동이 급한 우리 기업인 1만6천 명이 17개국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재외공관과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도 컸다”면서 “공관원들이야말로 재외국민과 동포들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동포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3



4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무엇보다도 성숙한 국민의식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스스로도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방역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배우고자 하며,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연대와 협력을 실천한 우리 국민과 동포 여러분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아시아계 상대로 한 혐오 범죄 증가에 대책 강구해야”

첫머리 발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과 화상으로 대화했다. 한국과 일본 등의 공조로 인도에서 귀국해 치료 중인 백혈병 어린이의 아버지 손혁준 씨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사히 따님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치료 경과가 좋아 다행”이라며 “대사관에서 교민들의 어려움을 잘 챙겨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장원삼 뉴욕총영사와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으로부터 코로나 19가 강타한 미국 뉴욕의 상황을 들은 뒤 “정부가 걱정하는 것보다 교민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계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체류 국민들을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이 도움을 준 사실을 언급하며 남관표 주일대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잘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모국 돕기 성금 거두기 운동을 펼친 김운천 ‘사랑의 나눔’ 회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 왕래가 빨리 이뤄지기 바란다”고 기대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며 관계 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돌보던 의사 이상기 씨는 “전세기 탑승을 준비하던 차에 교민 100여 분 정도가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고자 귀국을 포기했다”면서 당시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송고한 결단이었다”며 “덕분에 우한에 남은 교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간담회 도중 이라크 파견 근로자 293명 공군기 타고 귀국

이날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라크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 근로자 293명이 공군 공중급유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근로자 대표인 김성열 GS건설 현장소장과 정부의 이현 신속대응팀장(재외동포영사실장)도 화상으로 대통령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증상이 있는 분들과 귀국이 급한 분들을 먼저 모셔왔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돌아가신 한 분의 동료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베트남 교민 이가영 씨는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하고 베트남 회사에 취업했으나 외국인 입국 금지로 입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가 4월 중순 정부가 마련한 중소·중견기업인 대상 특별기편으로 베트남에 입국해 한숨을 돌렸던 사연을 전했다. 주태국대사관의 박광래 무관은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태국의 6·25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4만 장을 전달했을 때 모두 감격스러워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

1.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 조세영 1차관, 이태호 2차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배석해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서울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동포 화상 간담회'를 주재하며 첫머리 말씀을 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공중급유기로 귀국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에게 근황을 묻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과 함께 재외동포 화상 간담회가 열리는 외교부 종합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하려면 재외동포 역할 절실” 인구·재외동포 전문가 모여 ‘인구절벽’ 대안 모색

재외동포재단, 7월 30일 서귀포서 세미나 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이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재외동포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빠레브호텔에서 재외동포·인구·고용 등 3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초저출산·초고령화 위기! 대한민국 제3의 해법으로서 재외동포의 역할 강화’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은 국가 발전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사회의 역량은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해결책으로서 그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하는 750만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으며, 정진성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은 축사에서 “인구 문제와 재외동포를 연결한 의미심장한 세미나의 결과가 장래 한국 사회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인구 문제에도 결정적인 열쇠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1

“2040년에 한국 고령화 비율은 세계 최고에 이를 듯”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고령사회연구원장)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와 미래 위기’란 발표문을 통해 2020년 추정 합계 출산율(0.80)과 출생아 수(27만 명),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자 사망률 개선 등의 현황을 소개한 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2040년경부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2067년엔 고령화 비율이 46.5%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학생·국방인력·노동력 등의 수급 불균형, 사회보장 부담 증가, 소외·자살·안전사고 등 심각한 노인 문제 등이 대두할 것”이라면서 “재외동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동포 2세와 동포 3세의 추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귀속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외동포 대신 한인이란 용어 쓰자”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외동포 현황 과제’란 발표문에서 “국민과 민족을 포괄하고 이민사 변화 전개와 글로벌 시대 확장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동포 대신 한인이란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2

이 교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한 완화와 시민적 권리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정책과 달리 재외동포에 관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서 정의나 규정이 모호하고 부처 간 업무 분산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한인기본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과 잠재력 활용방안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임영언 한남대 사회혁신원 교수는 “일본인의 해외 이주 역사는 150년이 넘고, 남북미를 중심으로 분포한 외국 국적 동포(일계인, 日系人) 약 380만 명과 재외국민(재외방인, 在外邦人) 130만여 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해외 일계인들이 이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모국과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등 정체성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약 27만 명에 이르는 일본 거주 남미 일계인의 정착을 위해 언어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하면서,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은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 정책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내국인들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일자리 경쟁상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정부도 인적자원 개발이란 관점이 부족해 효과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국정과제와 국민 인식은 반비례”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이민다문화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 재외동포를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장 필요한 인력을 찾기보다 일본처럼 재외동포 인력이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국적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분리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인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대상을 범으로 집단화하면 다문화가족처럼 의존자나 취약계층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애선 한양대 고령산업융합학과장은 “차세대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포 또는 이민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중국 국적 동포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성민 한양대 고령산업융합학과 교수는 “재외동포사회의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달라진 그들의 요구를 파악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은 “정부의 국정과제는 재외통합이지만 국민의 인식은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재외동포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참]

-
- 1. 7월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빼레브호텔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식 한양대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민 한양대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장을 맡은 김혜순 계명대 교수.



미키 김 구글 아시아·태평양 하드웨어 사업 개발 부문 총괄 전무

국내 청소년 멘토 꿈꾸는 구글 전무 미키 김 아시아·태평양 하드웨어 사업개발 부문 총괄

미키 김(한국명 김현유) 구글 전무가 최근 유튜브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2년 ‘꿈을 설계하는 힘’이란 저서를 냈으며 2014년 개편된 고등학교 교과서 ‘진로와 직업’에도 소개됐다.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해외영업팀에서 일하던 그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영학석사(MBA)를 받은 뒤 2008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로 이직해 신규 사업 개발을 담당했다. 4년 뒤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상무로 승진했고 2017년부터는 아·태 시장 하드웨어 사업개발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구글 최고경영진상을 2년 연속 차지한 기록도 갖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만, 한국 조직문화는 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따른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로 근무지를 옮긴 김 전무 역시 요즘에는 집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오전에는 미국 본사, 오후에는 싱가포르·인도·대만·일본 등 아시아 실무진과 회의하는 게 주요 일과다.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받는 문화는 유물이 될 것입니다. 결과로 보여줘야죠. 코로나19 시대에는 무한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책임도 무겁게 지우는 기조로 흘러가리라 봅니다.”

김 전무가 구글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독창적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이와 그를 후원하는 자본가의 만남이라는 성공 방식이 실리콘밸리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사례가 속속 탄생하고 있어 굳이 실리콘밸리로 떠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김 전무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얻은 경험을 안고 귀향해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수했듯이 저도 언젠가 청소년이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로 중국인 마음 여는 김동신 한중문예진흥원 이사장 7년째 문화예술 교류, 학술 공동연구, 양국 유학생 지원

한중문예진흥원은 문화와 예술로 민간외교의 장을 열겠다는 목표로 2004년 창립된 단체다. 부동산 개발·컨설팅기업 (주)다우케이아이디의 김동신 대표는 2014년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문화 교류로 중국인의 마음을 열면 남북통일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욕적인 사업을 벌였다.

취임 첫해 중국 옌벤자치주에 동북아도시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박세영 연변과기대 교수를 소장 겸 한중문예진흥원 연변지사장으로 위촉했다. 동북아도시환경연구소는 동북아 도시환경과 물류 연구,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북한 도시건축과 남북 주거환경 디자인 연구를 하면서 관련 포럼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중국 연변대 석좌교수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지난 6년간 중국 연변·훈춘·투먼·룽



징·칭다오 등지를 돌며 문화예술 교류를 꾸준히 펼쳤다. 베이징에는 대표처를 두고 있다. 한·중학술회의와 유학생 교류 사업, 탈북자 지원 사업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청년 창업 교류대회'는 손꼽을 만한 행사가 됐다. 한중문예진흥원은 앞으로도 양국 대학과 기관 간 문화·예술 분야의 학술 세미나를 열고 우수 중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해 양성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중국 문화 콘텐츠와 한류를 융합하면 '깜짝 놀랄' 콘텐츠가 탄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한류가 중국에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문화 한류'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한인 100만 명과 중국 내 조선족 200만 명은 한·중 양국 교류의 디딤돌이자 남북교류 활성화에 다리 역할을 할 주역들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중국의 한국 유학생과 한국의 중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중 수교 27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한국 작가 100인 도록'을 자비를 들여 출간했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장애인들에게 마스크를 기증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동신 한중문예진흥원 이사장

2주 연속 우승한 재미동포 프로골퍼 대니엘 강 상금 1위에 오르며 세계 랭킹 1위 바짝 뒤쫓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8월 재개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미국 선수로 출전한 재미동포 대니엘 그레이스 강(한국명 강효림)이 드라이브온 챔피언십과 마라톤 클래식 우승 트로피를 잇따라 차지해 상금 랭킹 1위와 다승 1위에 올라섰다. LPGA 투어 2주 연속 우승은 2017년 평산산(중국) 이후 3년 만의 기록이다.

대니엘 강은 8월 셋째주 스코틀랜드 오픈에도 출전해 3주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했으나 아깝게 5위에 그쳤다. 그는 올해 참가한 LPGA 투어 5개 대회에서 2승을 포함해 4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랭킹은 4위에서 2위로 상승해 1위 고진영(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대니엘 강은 1992년 10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권유로 12세 때부터 두 살 터울의 오빠(알렉스 강)와 함께 골프를 배웠다. 2010년과 2011년 US 여자 아마추어 오픈을 연속 제패한 뒤 2012년 프로 무대에 데뷔해 5년 만에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대니엘 강의 오빠 알렉스 강도 미국 프로골프(PGA) 1부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니엘 강의 아버지 강계성 씨는 부산에서 증권업에 종사하다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어머니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한의사여서 대니엘 강은 어머니의 외모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골프닷컴은 2017년 그를 '아름다운 여자골퍼 5명'에 선정했다.

대니엘 강의 오른손 검지에는 부모가 늘 강조했던 말인 'Just Be' (있는 그대로의 네가 되어라)라는 영문 문신이 새겨져 있다. 2013년 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오른쪽 손등 우측 측면에 '아빠'라는 한글 문신을 새겼다.

부산 신개금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부산 사투리도 잘 구사한다. 부산시는 2019년 10월 대니엘 강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



재미동포 프로골퍼 대니엘 그레이스 강



미주 독립투사들의 애국혼을 만난다 대한인국민회 현장 등 81점 전시

독립기념관 특별전 ‘다락방 유물, 다시 빛을 보다’

모은 태평양 건너 있으면서도 꿈속에 **모**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몸바친 미주 지역 한인 애국지사들의 자취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8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발견 자료 특별전을 열고 있다. ‘다락방 유물, 다시 빛을 보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온 대한인국민회 현장 등 81점을 선보인다.

이 자료는 200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복원공사를 하던 중 다락방에서 발견된 자료 1만여 점 가운데 일부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대한인국민회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이 담긴 현장을 비롯해 대한인국민회가 제작한 3·1 독립선언서, 태극기, 총회관 낙성식 축하문 등이 주요 전시물”이라고 설명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전시는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끈기와 지혜로 굳건히 뿌리 내리고 조국의 자유 독립을 위해 투쟁해 온 미주 동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뜻 깊은 행사”라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재외동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한인국민회는 일제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대신해 미주 지역 한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버팀목으로서 동포들을 하나로 모아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단체다. 1909년 미주 한인 단체를 통합해 국민회라는 이름으로 결성됐고, 1910년부터는 대한인국민회로 불렸다. 한때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지의 한인 단체까지 포괄했으며, 기관지 신한민보를 발간했다.



독립기념관 특별전에 선보이고 있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낙성식 축하문(좌), 하와이 대한인부인회와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문또라(오른쪽)와 정월라 모녀

독립기념관은 광복절을 앞두고 미주 방면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사진과 초기 한인 이민사회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51점도 새롭게 공개했다.

사진의 주인공은 하와이 대한인부인회와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에서 활동했던 모녀 독립운동가 문또라·정월라 여사를 비롯하여, 일가족 8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아 미주 방면 독립운동 명문가로 꼽히는 강명화 선생, 박재형·차경신 부부, 김성권·강혜원 부부 등이다.

이 사진들은 민병용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역사박물관 관장이 소장하던 것이다. 민 관장은 1974년 8월부터 한국일보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으로 재직하던 중 초기 이민자와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자료를 수집했다.

그는 이 가운데 미주 이민사와 미주 방면 독립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 220여 점을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에 제공했다. 독립기념관은 이 사진 자료들을 연구·전시·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창**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여한 김민선 씨 뉴욕주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대의원

“차차기에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가능성”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로 불리지만, 정작 올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뉴욕주 광역 대의원 6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4년간 뉴욕한인회장을 지낸 김민선(59)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 학장은 뉴욕주 유일의 아시아계 대의원으로 8월 17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김 학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가 ‘화합’이라고 설명했다. 인종 갈등뿐 아니라 이념적 대립으로 진통을 겪는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이야기다.

특히 김 학장은 인도계 흑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의미를 강조했다. “미국에서 아시아 혈통을 가진 정치인은 드물다”면서 “해리스 의원이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 것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큰 희망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성을 무시한 독선으로 외교 분야의 후퇴를 초래했고, 소수계에 대한 편견으로 미국을 분열시킨 만큼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해리스 의원의 조합에 관심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학장은 대선 이후 해리스 의원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착실하게 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차차기엔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학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미국 뉴욕주 유일의 아시아계 민주당 대의원으로 8월 17~20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한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좌). 2018년 6월 7일 김민선 당시 뉴욕한인회장이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방문자센터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있다.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치밀한 준비 없이 북·미 정상회담부터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거시적이고 단계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기약과(바이올린 전공)를 졸업한 김 학장은 1983년 유학을 계기로 미국에 정착했다. 롱아일랜드의 나소 카운티 인 권국장을 9년째 맡아 지역 정가에 이름을 알렸고, 뉴욕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민주당원 중 한 명이 됐다.

지난해 6월에는 뉴욕한인회관에서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식을 열며 초대 관장에 취임하는가 하면 2018년 6월 워싱턴 DC 연방의회 방문자센터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김 학장은 “한인들이 미국의 정당 정치를 더 많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뿐 아니라 중앙당에 진출해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음 세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장**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서 한인 2세 기조연설

샘 박 변호사 '라이징 스타' 17인에 포함돼

차기 대통령 후보를 뽑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인 2세 변호사가 17인의 '라이징 스타'에 포함돼 합동 기조연설에 나섰다. 샘 박(한국명 박의진)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전당대회 이틀째인 8월 18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매우 아플 때 무력감을 느껴왔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권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전국민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건강보험 접근권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출마를 결심한 바 있다. 2016년 11월 선거에서 3선의 현역 공화당 후보와 맞붙어 이기면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조지아 주의회 내 첫 공개적 성소수자 의원이기도 하다.

이날 기조연설은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



한인 2세 변호사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령이 초래한 보건·경제 위기를 비판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끌 미래에 대한 지지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전파를 탄 것은 총 13분 21초짜리의 동영상이다.

17인의 '라이징 스타'에는 박 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이력과 인종 출신의 시장과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등이 선정됐다. 페루 이민자 출신이자 성소수자인 로버트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시장, 최연소 시장 기록을 세운 39세의

랜달 우드핀 앨라배마주 버밍엄 시장, 코너 램(펜실베이니아)·브렌던 보일(펜실베이니아)·콜린 올레드(텍사스) 연방 하원의원, 미국 인디언 원주민 나바호 자치구의 조너선 네즈 대표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에도 인도 동포 소식을 생생하게 전한다

광복절 맞춰 재인도한인총연합회 온라인TV 개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도에서 한인들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 재인도한인총연합회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유튜브 채널 '나마스떼 인도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7Y_Fd5OQT3F9zHaNbzmg)를 개국했다. '재인도 교민들이 만든 감동 광복절'이라는 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다.

인도처럼 동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나라에서 한인회 주도로 온라인 방송 채널이 마련된 것은 이례적이다. 재 인도 동포는 약 1만1천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4천300여 명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귀국했고, 신규 부임자·출장자 등 1천여 명은 예외 입국했다.

박의돈 재인도한인회장은 "보건과 안전이 열악한 인도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소통과 단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온라인 TV 채널을 개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마스떼 인도TV'에서 신봉길 주인도대사(오른쪽)가 이동식 스튜디오에서 개국 축사를 하고 있다.

나마스떼 인도TV는 앞으로 각종 세미나 영상을 비롯해 동포와 한국 기업 동정, 시사성 있는 정보 등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박 회장은 "교민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풍성

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마스떼 인도TV는 이동식 스튜디오도 활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살려 나갈 계획이다. 이 스튜디오는 첫 방송에서 신봉길 주인도대사와 박의돈 회장의 축하 영상 촬영에 활용되기도 했다. 신대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는 한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리멤버 727’ 정전협정일 맞아 온라인 평화 콘서트

재미 한인 단체 ‘리멤버 727’은 6·25 정전 협정 67주년 기념일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7월 27일 평화 콘서트와 촛불 점등 행사를 마련했다.

한나 김(한국이름 김예진) 대표는 “한국전쟁 발발일(6월 25일)을 상징해 평화 콘서트를 오후 6시 25분 유튜브(www.Youtube.com/Remember727)에서 시작하고, 촛불 점등 행사는 정전 협정일(7월 27일)에 맞춰 오후 7시 27분부터 열었다”면서 “13번째 맞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콘서트는 이완 와그너의 ‘잇힌 승리’ 연주, 필리핀 마닐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맥스 영 씨의 인사말과 그의 후손들이 펼치는 힙합 공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의 연주 등으로



‘리멤버 727’ 평화 콘서트와 촛불 점등 행사 포스터.

꾸며졌다.

한국어가 능통한 콜롬비아 인플루언서(SNS 유명인) 카밀라 산체스, 인도의 비트박스 챔피언 BBX 인디아, 미국 펑크 록 밴드 리더 단 리드, 버지니아주 워싱턴소리청의 매들린 JY, 호주 시드니의 가수 에이스 코테프스키 등이 등장에 노래를 들려줬다.

온라인 ‘한국전쟁 기념관’(www.KoreanWarMemorials.com)을 만드는 데 기여한 캘리포니아주의 화랑청소년재단(총재 박윤숙) 소속 학생 11명과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딸이자 ‘한국 여우굴에서 온 편지’의 저자

엘리자베스 벤틀리니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나 김 대표는 7월 27일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을 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 다문화 인재를 잇는다

‘사회통합 동행 브릿지-국제포럼&청년트레이닝’

750만 재외동포와 남북한 동포를 잇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원코리아가 7월 28일 서울 강남구 스카라티움에서 ‘사회통합 동행 브릿지, 원코리아 인 아시아 2020년 국제포럼&청년트레이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의 우수한 다문화 인재들을 발굴해 국내외 기업과 연결시키고, 글로벌 리더로 양성해 대한민국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합창, 한국무용, 마술 등 식전 공연에 이어 김희정 원코리아 이사장의 인사말, 김영진 3·1운동 유네스코 등재기념재단 이사장(전 농림부장관)과 김희선(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공동회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유럽의 한인 거상(巨商)으로 꼽히는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이 특강에 나섰다. 박 회장은 고국인 지식기반 사회로 나



원코리아 김희정 이사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020 국제포럼&청년트레이닝’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적 경영 이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뒤 창조정신을 강조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업해 유럽·러시아 등 15개국에서 여러 계열사를 둔 그룹을 일궈냈다. 오스트리아 한인협회장과 한국·오스트리아 친선협회 부회장,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을 맡아 유럽 내 한인 결속과 화합을 이끌었다.

특강에 이어 ‘사회통합 동행 브릿지’ 발대식 순서도 마련됐다. 부산외대 대학생과 파키스탄 유학생 간 ‘또래봉사 자매결연’ 증서 전달식, 사회공헌 기업 코리아지엘스와 방글라데시 유학생 간 희망 브릿지 결연식, 원코리아 인 아시아 희망 브릿지 선언문 선포식 등이 치러졌다. **창**



중국 상하이 한인타운서 한 달간 한국 문화 축제

중국 상하이 한국상회는 상하이 총영사관과 시정부 후원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한평제(韓風節)를 마련했다. 8월 15일 상하이 한인타운 홍취안루(虹泉路) 일대 상가에서 개막했으며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전통복식 퍼레이드, 사물놀이, 메이크업 시연 등이 펼쳐지고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e스포츠 등 부문별로 1주씩 모두 4주간에 걸쳐 특별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주최 측은 하루 1만 명씩 총 30만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멕시코대사관, 한인 후손 장군이 이끄는 부대에 마스크 선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한인 3세 안드레스 페르난도 아기에레 오순사 소장이 사령관으로 있는 유카탄주 32지역 사령부를 8월 15일 방문해 마스크 5천 장을 전달했다. 아기에레 오순사 사령관의 증조할아버지 오순식은 1905년 유카탄주로 건너가 에네켄 농장 노동자로 일한 1세대 한인 이민자 1천31명 중 한 명이다. 현재 멕시코와 쿠바에는 에네켄 후손 3~6세대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이 많이 모여 사는 유카탄주는 지난해부터 매년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순국 100돌' 기리는 최재형상 초대 수상자에 조영식 회장

최재형선생기념사업회는 최재형상 본상 초대 수상자로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회장을 선정했다. 조 회장은 경기 안산지역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글 야학 '너머'를 적극 후원하고 초대 이사장도 맡았다.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이 이끄는 영산그룹은 단체상,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 민족학교' 김발레리아 교장은 특별활동가상을 각각 받았다. 최재형 선생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꼽힌다. 2011년 출범한 기념사업회는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올해 최재형상을 제정했다.



'다낭 한인 힘내라'... 베트남 중부한인회 식료품 나눔 행사

베트남 중부의 유명 관광지 다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실상 봉쇄되자 깊은 시름에 빠진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눔 행사가 열렸다. 베트남 중부한인회는 희비를 각출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협찬을 얻어 8월 18일 다낭 K마켓 팜반동 지점 앞에서 동포 250명에게 식료품,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무료로 나눠줬다. 다낭은 한국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던 곳이었으나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고, 7월 말 확진자가 속출해 외출 금지 명령 등이 내려졌다.

오사카 민단 고문, 한국인 유학생에 코로나19 지원금

정현권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오사카본부 상임고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긴키(近畿) 지역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140명에게 1천만 엔(약 1억1천만 원)을 지급했다. 정 고문은 일본 국가 공인자격을 취득해 동포사회와 일본사회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지는 취지로 '자격취득장려금' 300만 엔도 조성했다. 재일한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민단 오사카본부 소속 청년·학생 등도 대상이다. 정 고문은 민단 오사카본부 단장을 지냈으며 2019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뉴욕총영사관, 필라델피아 경찰서에 마스크 2천 장 기증

미국의 주뉴욕총영사관은 7월 24일 필라델피아 한인회와 함께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필라델피아 35구역 경찰서에 보건용 마스크 2천 장을 기증했다. 필라델피아 한인사회는 6월 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거세게 번진 흑인 시위 사태로 점포 약탈 등의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장원삼 총영사는 경찰서 간부들에게 "한인 동포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한 뒤 사른 황 한인회장 등 필라델피아 한인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미국 ‘버라이어티’ 지가 꼽은 ‘영향력 있는 법조인’

동포 2세 변호사 앤지 강 박 홀루 부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뜨는 미디어는 홀루와 넷플릭스처럼 인터넷상에서 음성·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중문화 잡지 ‘버라이어티’(Variety)가 ‘2020 영향력 있는 법조인’에 선정한 재미동포 2세 앤지 강 박(37) 변호사의 포부다. 그는 미국 내 한인 첫 직선제 시장인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의 딸이자 JP모건에서 근무하는 로런스 박 씨의 아내다.

버라이어티는 1905년 창간된 115년 역사의 주간지다. 영화산업이 발달하면서 할리우드의 소식을 전하는 일간지도 1933년부터 발행됐다. 버라이어티는 매년 할리우드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 가운데 빛나는 활동을 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는다. 올해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영향력 있는 법조인’으로는 영화, TV 등 각 분야에서 모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앤지 변호사는 홀루의 비즈니스·법률 담당 부사장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다. UC버클리 로스쿨 출신으로, 로펌인 ‘레이팀 & 왓킨스’에서 3년간 근무하다 2011년 홀루에 합류했다.

홀루는 넷플릭스의 급성장으로 위기를 느낀 월트 디즈니 컴퍼니, 뉴스 코퍼레이션(분할 후 21세기 폭스로 승계), 컴캐스트, 타임 워너의 공동 투자로 만들어졌다. 초창기 지분은 각각 디즈니 30%, 폭스 30%, 컴캐스트 30%, 워너 10%였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홀루의 부사장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앤지 강 박 변호사

으나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고 타임 워너의 모회사 AT&T가 홀루 지분을 디즈니에 팔면서 디즈니와 컴캐스트만 대주주로 남게 됐다. 2019년 5월 14일 디즈니와 컴캐스트 간 계약에 따라 디즈니는 2024년부터 홀루 지분 100%를 갖게 된다.

앤지 부사장은 ABC·NBC·CBS·디즈니 채널·폭스 등 지상파 방송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홀루에서 4명의 변호사와 함께 콘텐츠 거래, 건물 임대 계약, 배우 계약 등을 총괄한다.

그는 “홀루의 기업 가치를 300억 달러(약 35조9천100억 원)로 키운 공로를 버라이어티가 인정해 ‘디지털 미디어’ 부문에서 나를 뽑은 것 같

다”고 말했다.

앤지 부사장은 “디즈니와의 합병이 워낙 큰 거래였기에 그것을 크게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디즈니가 합병한 폭스와 디즈니의 콘텐츠 라이선스·라이브 계약도 맡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포 2세가 주류사회, 특히 할리우드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큰 성과를 올려 한인의 우수성을 보여줬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그는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을 때 내가 임신 중이었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을 때 아들을 얻었다”면서 “이 ‘빅 딜’은 아들과 내가 함께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30주기 맞은 고려인 4세 록가수 빅토르 최

소련 개혁의 아이콘에서 한·러 우호의 상징으로

한 국계 러시아 록가수 빅토르 최가 28세의 나이로 요절한 지 30주년을 맞았다. 그의 선대는 여느 고려인이 그렇듯 유랑의 세월을 보냈다. 함경북도 성진에 살던 증조부 최용남은 1910년대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고, 조부 최승준은 1937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로 강제이주했다. 부친 최동렬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뒤 러시아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거주지를 옮겼다.

빅토르 최는 엔지니어로 일하던 최동렬과 우크라이나 태생의 교사 발렌티나 바실리에브나 구세프 사이에서 1962년 6월 21일 태어났다. 고교 과정의 미술학교를 다니던 중 록그룹 '제6병동'을 결성했다.

세로프 예술대(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문화예술대)에 진학해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갔으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록그룹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그 뒤 '가린과 쌍곡면'이란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1982년 여름 록그룹 '키노'(영화)를 결성하고 데뷔 앨범 '45'를 발표했다.

빅토르 최는 서정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을 담은 노랫말, 묵직한 중저음 목소리, 러시아 특유의 음울한 정서가 밴 멜로디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대표곡은 1988년 발표한 반전 가요 '혈액형'이었다. 국내에서도 윤도현밴드와 한대수 등이 번안해 불렀다. 이 밖에도 '변화를 위해', '비핵화 지대로'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떠올랐고 소련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아이콘이 됐다.

1990년 키노는 절정기를 맞았다.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 최대 경기장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6만2천여 명의 관객을 모아놓고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펼쳤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공연 일정이 잡혀 빅토르 최는 난생처음 증조부모의 나라를 방문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2014년 8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빅토르 최 '추모의 벽'이 세워졌다. 한 여성이 빅토르 최의 대형 얼굴 그림을 손으로 만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 8월 15일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낚시를 즐기러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와 정면충돌해 즉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열혈 소녀 팬 5명이 뒤따라 자살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소련 정보국 KGB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암살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빅토르 최 추모 열기는 아직도 뜨겁다. 곳곳에 동상과 추모의 벽이 세워졌고 헌정 음반, 전기, 뮤지컬, 추모 공연 등이 선보였다. 2018년에는 그의 삶과 음악을 담은 영화 '레토'(감독 키릴 세레브렌니코프)가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개봉하는가 하면 빅토르 최 여권이 경매에서 1억5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올해는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과 빅토르 최 30주기를 맞아 한·러 수교 30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러시아에서 양국 록가수들의 합동 공연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창**

항일투쟁의 요람 신흥무관학교 기틀 세운 이석영

전 재산과 목숨까지 바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본보기

1910년 12월, 이회영을 비롯한 6형제는 가족 60여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4개월 전 한일 강제합병이 이뤄지자 만주에 항일투쟁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10대조 이항복이 영의정에 오르고 부친 이유승도 이조판서를 지내 정승·판서만 9명을 배출한 최고 명문의 후손이었다.

이처럼 귀족 가문 일가가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 집단 망명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들 형제는 한 명도 변절하지 않고 항일운동에 몸을 바쳐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본보기가 됐다.

망명을 주도한 것은 비밀결사 신민회를 창립한 넷째 이회영이었으나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둘째 이석영(1855~1934)이었다. 그는 1885년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다. 영의정을 지낸 백부 이유원의 양자로 들어가 양부에게서 물려받은 집과 전답 등을 전부 팔아 독립운동자금에 보탬다. 이 돈을 요즘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에 이른다.

이석영 형제의 공적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것은 신흥무관학교 설립이다. 이들은 이상룡·이동녕·김동삼 등 서간도의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협의해 중국 길림성 유하현 삼원보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경학사를 결성하고 1911년 6월 10일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배운다’는 의미의 경학사(耕學社)는 한인 자치단체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항일단체였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신흥강습소도 만주 군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이름이었다. 신흥(新興)은 새롭게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뜻이다.

1912년 7월 20일 길림성 통화현 합니하(哈尼河)로 옮긴 이듬해 신흥학교로 개명한 데 이어 1919년 5월 3일 유하현 고산자



이석영 선생 영정

이석영 선생 사망 기사가 실린 매일신문(1934.2.28)

(孤山子)로 이전해 신흥무관학교 간판을 달았다.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의 탄압과 마적의 습격 등으로 1920년 8월 문을 닫을 때까지 9년여 동안 2천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이 흥범도의 대한의용군과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등의 중추가 돼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맹활약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변영태와 이범석, 김법린 전 문교부 장관, 김원봉 의열단장, 윤세주 조선의용군 부대장,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본명 장지락), 송호성 초대 국방경비대 사령관, 오광선 광복군 국내지대장 등이 이곳 출신이다.

이석영은 전 재산을 바쳐 중국 각지를 떠돌며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노후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1934년 상하이 빈민가에서 눈을 감았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올해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는다.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석영 선생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장**

광복 75주년임에도 황량한 연해주 독립운동 사적지

신한촌 기념비 · 최재형기념관 등에 한국인 발길 끊겨

제 75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오후, 기자가 찾은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 기념비에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이날 신한촌 기념비 입구의 문은 굳게 닫혔고 주변은 오가는 행인이 거의 없어 쓸쓸하기만 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겹쳐 독립투사 등 선조에 대한 기념 열기로 뜨거웠던 지난해 이맘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한국과 북한, 재외동포를 각각 상징하는 높이 3.5m가량의 대리석 기둥 세 개가 처량하게 보일 정도였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하늘길이 막혔고 이로 인해 연해주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

한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 주변 분위기는 거의 비슷했다. 한인들의 집단거주지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서울 거리 2A' 주소 표지판이 내걸린 가옥 주변에서는 오랜만에 찾아온 외지인의 방문을 반기는 현지 주민도 있었다.

주민은 주변을 둘러보던 기자에게 “한국에서 왔느냐”고 반갑게 물어보면서 “작년에 주소 표지판을 보려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였는데 지금은 외국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시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성재 이동



굳게 문이 닫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기념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기념관.

휘(1873~1935) 선생의 집터 등 흔적조차 사라진 사적지들의 쓸쓸함은 더했다. 과거 신한촌은 단순한 한인 집단 거주지가 아니었다. 항일운동에 필요한 언론과 교육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빼곡히 자리를 잡은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이를 의식한 일제는 100년 전인 1920년 4월 신한촌에서 대학살극을 벌였다.

일본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세력인 적군과 협력하는 한인 세력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일본군은 4월 4일 밤 러시아 적군의 주요 근거지와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등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격과 방화, 가택 수색, 검거, 학살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무수한 한인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다음날인 5일 이른 아침 일본군은 신한촌이 아닌 우수리스크에서도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때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최재형(1860~1920) 선생 등 대표적인 한인 지도자가 모두 사살됐다.

‘연해주 항일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최재형은 무역과 건설업 등으로 번 돈을 쏟아부어 동의회와 권업회를 결성했고, 안중근(1879~1910)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뒤에서 도왔다. 올해는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이지만 코로나19 탓에 관련 행사 대부분이 취소·연기됐다.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세운 기념관 역시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문을 닫은 상태다.

해마다 여름이면 침수 피해를 겪던 우수리스크 라즈돌나야 강변의 이상설(1870~1917) 유허비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외로움을 덜었다.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와 한국 기업·교민들로 구성된 ‘이상설 유허지 돌봄이’는 8월 15일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

김형우 연합뉴스 블라디보스토크 특파원

코로나19에 뼈격거리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세종시 건설 경험 있는 한국에 도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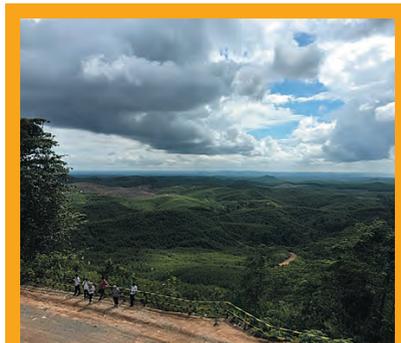
전 기자동차와 드론 택시가 다니는 친환경 도시,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를 대신해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에 건설하려는 신수도를 표현한 말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구와 경제력의 자바섬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대통령궁과 의회는 물론 대법원까지 모두 신수도로 이전하고, 자카르타는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법을 올해 3월 발의하고 7월에 착공한다는 계획 아래 세계 최대 컨설팅업체와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국정 운영 초점을 코로나 대응에 맞추면서 모든 계획이 중단됐다.

관련 예산이나 로드맵도 없으니 착공도 내년으로 미뤄졌고 2024년 1단계 이주라는 목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도네시아 각 부처가 신수도 이전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의욕적으로 물밀 작업은 하고 있으나 대형도시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어 우왕좌왕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세종시를 건설한 과정을 보면 ▲2005년 3월 특별법 공포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개청 ▲2008년 12월 정부청사 착공 ▲2009년 3월 첫 마을 착공 ▲2011년 12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건설 예정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에 파견된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부이사관 등이 현지 공무원들과 회의를 열고 있다.

월 첫 마을 1단계 입주 ▲2012년 9월 총리실 이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시 건설 특별법 제정 후 정부청사 첫 입주까지 7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대전시에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 등 인프라 시설을 연결하는 데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건설 예정지는 인구 75만 명의 발릭파판 시내에서 100km 떨어져 있다. 예정 부지는 대부분 나무를 키우는 조림지로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형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30억 달러(40조 원)의 신수도 건설비 가운데 20%만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민간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누가 선뜻 투자에 나설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에는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228억 달러(28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제일동포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300억 달러(36조 원) 이상 투자 의사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

중국과 일본마저 눈독을 들이자 한국 정부는 재빨리 인도네시아와 수도 이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행복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가 3명을 올해 2월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에 파견했다.

한국은 세종시를 건설한 경험이 있기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이 침체한 한국 해외 건설 경기에 청신호를 켜주고 한국-인도네시아 우호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

성혜미 연합뉴스 자카르타 특파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다 이어져 있죠”

에밀리 윤 영문시집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 국내 번역 출간



시집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 표지



재미동포 시인 에밀리 정민 윤이 8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집 국내 출간 기념행사에서 화상으로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38선까지 내내 혈혈단신으로 걸었다 / 미군들이 내게 DDT를 너무 많이 뿌렸고 / 이가 전부 떨어져 나갔지 / 12월 2일이었다 / 나는 자궁을 잃었고 / 이제 일흔셋이다”(‘증언들’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시집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열림원)을 펴낸 재미 한인 시인 에밀리 정민 윤은 “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놀라워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새로 알리는 게 아니라 덧붙임이 될 것 같다”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내 언어를 더함으로써 이어가 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1.5세인 그는 한국에 입국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중이어서 국내 취재진과 8월 13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시집은 2018년 9월 ‘A Cruelty Special to Our Species’라는 제목으로 미국 메이저 출판사 하퍼콜린스에서 출간했다. 이것을 한국어로 옮겨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다. 소설가 한유주가 번역을 맡았다. 시집 앞부분에는 한글판, 뒷부분에는 영어 원본이 함께 실렸다.

미국 출간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작품에서 눈을 땔 수가 없다”고 소개했다. 김혜순 시인은 “인류가 가진 모든 구분에 대한 참혹한 조롱의 울부짖음”이라고 평했다.

당시 시집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처음 들었다”, “이런 역사

를 알게 돼 반갑고 고맙다”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우리의 보편적 경험을 시로 접하게 돼 감사하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에밀리 윤은 “잔인함의 주체는 인간”이라며 “인간 잔인함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국한한 게 아니라, 인간의 폭력적 측면을 부각하고 싶었다고 한다.

“전쟁 폭력에 관해 쓰고 싶었어요. 다양한 폭력들, 현대 여성들이 받는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반일 민족주의로 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경험을 중심에 두되 내 경험과 아시아계 여성 모두의 경험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읽으며 일본군 위안부뿐 아니라 전쟁 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에서 벌인 성 착취,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 미국인이 한국에서 범한 일 등이 모두 역사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밀리 윤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뉴욕대에서 문예창작 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욕대 석사과정을 밟을 당시 다른 여성 시인들과 대화하면서 이 시집의 초안을 대부분 썼다고 한다. “앞으로는 조금 더 사랑에 관해 쓰고 싶다”는 희망도 덧붙였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열사(烈士)와 의사(義士)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선열들에게는 '열사' 혹은 '의사'의 칭호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준 열사'나 '안중근 의사'라고 하듯이 어떤 분은 열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의사라고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열사'는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의사'는 '의로운 지사'라고 적어 놓고, '지사'에 대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열사'나 '의사'나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하겠다는 의로운 마음을 품고 몸과 마음을 바친 분입니다. 관행적으로 '열사'는 맨 몸으로 투쟁하다가 순국한 사람을 가리키고, '의사'는 무력을 동원해 싸우다 숨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살아서 광복을 맞은 독립투사에게는 보통 '지사'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우애(友愛)와 우의(友誼)

사람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애'라는 말은 흔히 형제자매 사이의 따뜻한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자 '벗 우(友)'가 뜻하듯이 친구와의 사랑을 일컬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이나 '우의'라는 말은 친구 사이에서만 쓸 수 있고 형제자매 간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우정'은 한자 뜻 그대로 '친구와의 정'을 말하고, '우의'는 '친구 사이의 정의', 다시 말해 '친구끼리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을 뜻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어서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애'도 비슷한 말이긴 하나 '두터운 정'보다는 '따뜻한 사랑'에 더 가깝고 주로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주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가로 방향 열쇠

- 오라비와 누이
- 머리와 꼬리를 자름. 요점만 말할 때 흔히 쓰는 말
- 싸움에서 이긴 여세를 타서 뺏다 물아침
- 천체가 스스로 회전하는 운동
- 카메라에 달려 있는 기계 장치의 하나. 렌즈를 통과하는 광선의 양을 조절하죠
-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등은 모두 이것이 분출해 이뤄진 지형이랍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
- 새로 나온 인물이나 물건. 어떤 일에 처음 나서서 일이 서투른 사람을 가리켜 '○○내기'라고 하죠
- 원소 기호 1번.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볍죠
- 일이 뜻밖에 일어남. '○○사고'
- 한 가족이 살림하고 있는 집안
- 유형업소가 밀집해 있는 거리
-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 풀. 열매는 가늘고 길며, 호박보다는 작다. 피부 미용에 쓰이기도 한다
- 귀여운 아기의 살찐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죠
-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4가지 전통 타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 같은 전쟁에 참전했거나 같은 군대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의 모임. '해병○○○'

▶ 세로 방향 열쇠

- 물건의 꼭대기. 한 단체의 1인자
- 오미자나무의 열매
- 저승의 반대말
-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과 대장, 소장, 위, 담, 방광, 삼초를 가리키는 말
- 따르릉
- 강가나 바닷가의 작은 돌
- 고쳐서 새롭게 함.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를 '○○교'라고도 하죠
-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경치를 이르는 말
- 모험을 즐기는 사람
- 집을 떠나감. 처녀가 시집을 가면 '○○외인'이 된다
- 갖고 있음. '토지를 ○○하다'
- 반딧불이나 야광충처럼 몸에서 빛을 내는 동물
- 낮 12시
- 흥부전에 나오는 주인공 형제 이름
- 이사들의 회의
-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

▶ 2020년 6월호 정답

독	도		신	의	주		경	고
립		신	문		자	정		구
문	부		고	고	학		고	려
	다	리		래		상	소	
카	페						공	원
	스	타		당		목	포	
페	트		마	구	간		증	거
스		잡	스	크	병	역		문
트	림		크	레	인		창	고

한우성 이사장, 국방TV · 국방일보와 인터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8월 17일 국방TV '이슈&토크'에 출연해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재외동포 활약상을 알리고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으로 3·1운동의 마중물을 부었고, 3·1운동의 결과로 설립된 상해임시정부도 재외동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주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임시정부가 재미동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한인비행사양성소(윌로스 한인비행학교)를 설립한 과정을 소개했다.

한 이사장은 "광복 이후에도 재외동포들은 6·25 전쟁과 IMF 금융위기 등 우리 민족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힘을 보탤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도 함께했다"면서 "앞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750만 재외동포와 5천200만 내국인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이사장은 국방일보 기자와도 만나 8월 13일자 국방일보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국방TV '이슈&토크'에 출연해 재외동포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그는 "재외동포들이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면서 재외동포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재외동포 교육'에 공동 노력

재외동포재단은 내국민의 재외동포 이해 제고와 재외동포 2세들의 한글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8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의 한우성 이사장과 김봉섭 전문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 조용기 부원장, 이미경 기획조정본부장, 한혜정 교육과정·교과서본부장, 장경숙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재외한글학교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연수와 현장 조사, 컨설팅을 위한 공동 노력 ▲재외동포 이해 관련 교육 자료와 연구정보 교류 및 학술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정규 교육에서 재외동포 교육이 의미 있는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에서 4번째)과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왼쪽에서 5번째)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준으로 시행되고, 국외적으로는 동포 2세들을 위한 한글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해방 75년째의 여름을 맞이하여- 재일동포의 현상과 과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일본에는 약 38만 명의 한국·조선인이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약 31만 명은 식민지통치 시대에 일본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과 그 자손이다. 해방 후에도 한반도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상황을 배경으로 재일 한국·조선인은 귀국하지 못한 채 일본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배로 형성된 차별 구조와 남북분단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해방 후 75년이 지난 지금도 재일 한국·조선인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재일 한국·조선인 대부분은 1910년 식민지통치가 시작되고 나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돼 일본이 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일본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후 재일 한국·조선인의 동의 없이 일본 국적을 박탈했고, 일본 대법원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 조치를 시인해 왔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조선인의 인권을 제약해 왔다. 많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분야에 국적 조항이 포함되었고 공직에서도 배제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조선인 2세에 의해 인권 회복 운동이 직업선택권이나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77년에는 내 아버지(김경득)가 한국 국적자로서 처음으로 사법 수습생으로 채용되었고, 외국적자에게 변호사의 길을 열었다(현재 일본에는 200명이 넘는 한국 국적 또는 조선적 변호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분야에서 국적 조항이 기본적으로 철폐되었다.

남은 제도적 과제의 하나가 지방참정권이다. 일본 국적법은 엄격한 혈통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어 나를 포함해 3세, 4세가 되어도 외국적인 채로 살아가는 한국·조선인이 많다. 일본 국적법에 귀화 수속 규정이 있지만 민족주의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재일 한국·조선인 대부분이 문화적 동화 압력과 차별 공포를 이유로 귀화할 때 한국식 성을 일본식으로 바꾼다. 일본에서는 귀화가 법적인 국적 취득에 머물지 않고 민족적·문화적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 재일 한국·조선인 대부분은 지금도 귀화에 저항감을 느낀



김창호 변호사(재일한국인 2.5세)

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납세 등 일본인과 똑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데도 재일 한국·조선인은 지방선거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일본에서 몇 세대에 걸쳐 거주하는 한국·조선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밖에 한·일 간의 다양한 정치적 갈등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혐한 움직임이 널리 퍼지고 한국·조선인에게 대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가 만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점점 내셔널리즘이 첨예화하고 있다. 오늘 재일 한국·조선인의 존재는 일본의 국가적 내셔널리즘으로 인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의 결과로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재일 한국·조선인은 기존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하는 역할을 동아시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보장을 향해 미력이나마 노력해가고 싶다. **창**



2020년도 재외동포재단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 현지 장학생 모집 공고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의 우수한 동포 인재를 발굴하고 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조선족·고려인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에서 재학 중인 조선족 및 고려인 대학(원)생

※ 상세 내용은 모집요강 확인(세부 지원대상, 선발 기준 및 우대 기준 등)

■ **지원 내용:** •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US\$ 1,200(1명/1년)
• 기타 CIS 지역: US\$ 1,000(1명/1년)

■ **신청 방법**

- 1 코리아넷(www.korean.net) 회원가입, 로그인→사이트 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또는 '공지사항' 확인→공고문 바로가기→공고문 하단 '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 후 저장 및 출력
- 2 출력한 신청서에 서명 후 증빙 서류와 함께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등)에 제출

■ **신청 기간:** 2020년 8월 18일(화) ~ 9월 11일(금)

※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및 공관으로의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함

■ **신청서 접수 이후 일정**

- 장학생 선발 심사(9~10월 중)
- 선발 결과 발표: 코리아넷 홈페이지(10월 말)
- 장학금 지급(10~11월 중)
- 수학 소감문 및 성적증명서 제출(2021년 7월경,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모집 요강을 반드시 숙지하고, 문의 시 전화 연락보다는 이메일(한국어·영어) 활용 요망

-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중국 및 러시아·CIS 거주지역 내 대한민국 공관
-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홈페이지 오류 등: 재외동포재단 김영민 과장(youngmin@okf.or.kr +82-64-786-0292)
- 장학생 선발 및 기타 문의사항: 재외동포재단 김정희 대리(johnny@okf.or.kr, +82-64-786-0277)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동토의 별 김연승(광복회)

한국 대표 만화가들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주역들을 만날 수 있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차분 '위대한 시민의 역사' 세트 33권 가운데 '동토의 별'의 주인공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최재형이다. 1860년대 러시아로 건너가 무역업과 건설업 등으로 번 돈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었고,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도왔다. 생생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컬러 만화로 그의 생애를 만나보자.



등을 받았다. 인문학당 흥소 회원들은 6주 동안 그의 자서전과 시를 읽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 기록과 후기를 책으로 엮었다. 학자나 평론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김시중은 어떤 모습일까.



I am The Brian 브라이언 전(생각나눔)

〈"나는 한국인을 싫어한다."라는 인종차별에 맞선 한인 교고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던 저자는 교사가 수업 중 '한국인을 싫어한다'고 말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1천500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이후 한인과 아시아 차세대 단체를 만들어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종차별 이슈가 나라 안팎으로 뜨거운 요즘 재미동포 2세 교고생의 자서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서있는 곳이 우리의 지평이다 인문학당 흥소(부크크)

'재일 제주시인 김시중의 삶을 읽다'란 부제가 달렸다. 제주 4·3사태에 연루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김시중은 비극적인 현대사와 더불어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해 일본 오사라기 지로상과 다카미 준 문학상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할 [통]

함니다

75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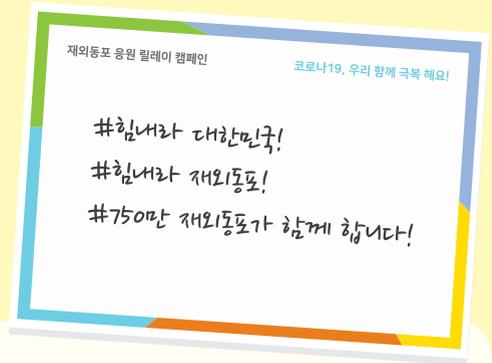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 릴레이 캠페인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 희망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망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가 주세요.

참여방법



* 자세한 참여방법은 **코리안넷(www.korean.net)** 희망릴레이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 ▶ Tip 1 지목 받지 않아도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 ▶ Tip 2 피켓 출력이 어려운 경우, 도화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힘내라대한민국! #힘내라재외동포! (또는 거주국이나 단체명) #750만재외동포가함께합니다! #코리안넷 #재외동포재단

캠페인 관련 문의 pms01@okf.or.kr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